



1917년 수기동 광주전등회사.(사진으로보는 광주백년,1989)



1960년대 울산동 호남전기.(광주시사,1965)

1917년 광주전등주식회사 전등 1천여개 생산

김경수의 '광주땅' 기획 이야기

<24>전기시설

19세기에 시작된 전깃불은 20세기 석유시대를 거쳐 21세기 전력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5년 전 옥상에 일자형으로 가정용 태양광시설을 갖춰다. 한전에서 매달 전기료 문자가 온다. 가정·농사용 합쳐 월 2-3만원이다.

2019년 광주전력사용량은 860만MWh로 서비스업 37.3%, 제조업 31.5%, 가정용 23.7% 순이다. 2020년 발전설비는 31만4천kW로 신재생(태양광·바이오·소수력) 61.9%, LNG 33.8%다. 발전량은 60만9천MWh로 LNG 57.%, 신재생 39.7%다.

선로길이는 6천19km이며, 지중 비율은 36.9%이다. 전선전체길이 1만7천964km 중 28.7%가 땅속에 있다. 지지물은 첩담 17개를 비롯 10만7천142개가 설치돼 있다. 변압기 3만7천917대의 용량 합계는 255만5천250MVA(메가볼트암페어·전압×전류)이다.

광주최초 전기시설은 1917년 여름, 수기동 43번지에 선 '광주전등주식회사'다. 목조단층 합석지붕에서 생산된 1천여 전등 수요자 중 자혜의원 95등, 감옥 45등, 우편국 35등이다. 요금은 보통집등용 16촉광 1원30전, 10촉광 1원, 5촉광 70전이다.

현재 아트리뷰스가 들어선 곳으로 땅쪽보는 1912년 수기동정 138번지 발 2천334㎡(706평), 1917년 6월12일 광주전기주식회사, 1922년 대구 동원정 대흥전기, 1938년 경성 황금정 남산합동전기, 1961년 남대문로2가5번지 한국전력, 1973년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제약이다. 건너편 수기동정 134번지(수기동7) 발 1천328㎡(402평)도 1924년 변전소터로 월산동 49·50번지 552(167평)·1천252㎡(379평)과 함께 1931·34년 대흥전기 소속이 된다.

1937년 자료에는 금(巨)선 6만7천800m, 전선연장 29만6천400m, 전주수 1천357개, 수용가수 5천654, 점화등수 2만1천991, 가등(街燈)수 1천379, 1개년 전등료 15만6천536원(엔), 전력수용가수 169, 제치(製置)전력 59만9천445kW, 1개년 전력료 3만4천648원(엔)로 기록돼 있다.

1962년 임동 104-7번지 4천591평에 광주디젤발전소가 설립된다. 시설용량 1만1천790kW으로

1964년 지역 공급전력 1만2천493kWh...산업·농사·가정용 순한전, 1970년대 용봉동·각화동·농성동에 변전소 설치 잇따라 열병합발전 수완에너지, 소수력발전 승촌보·광주호·용연정수장



1980년대 농성동 한전.(사진으로보는 광주백년,1989)



현재 오지동 한전 광주전남본부.(향토지리연구소,2021)

영국 러스틴사가 제작, 공급했으며, 주연료는 중유이나 기동·정지할 때는 경유를 썼다. 1976년 폐지되고, 1980년대 한전광주보급소가 있다가 2005년 한국아델리움아파트가 섰다.

1964년 광주시 공급전력은 1만2천493kWh로 호남화력 8천10kWh, 보성수력 1천512kWh, 광주디젤 2천419kWh, 목포디젤 546kWh, 진도화력 5kWh 순이다. 전력수용(需用)상황은 산업용 3천310만kW, 농사용 35만8천kW, 일반가정용 863만kW이다.

1967년 병무청 복원 학동 105-1번지에 남광주출장소가 문을 열고, 1970년 한전 전남지사는 농성동 161-1번지로 나간다. 땅주인이력은 1915년 논 2천919㎡(883평)이 누문리 김명준, 1918년 양림리 정병호, 1943년 전남요업, 1969년 11월 한전이다. 금년 봄 대지 6천578㎡(1천990평)에 건축면적 2천386㎡(722평), 연면적 6천694㎡(2천25평), 지하1·지상3층으로 신축된 건물에는 '서광주지사'가 들어섰다.

1970년대 변전소가 용봉동 729번지, 각화동 320번지, 농성동 550번지에 설치된다. 용봉동 726-733번지 일대 9천평이 1969년 한전 땅으로 편입된다. 1993년 한전아파트가 건립되고, 2006년 동편에 3천305㎡(1천평) 지하1·지상4층 건물이 신축된다. 각화동농산물시장 동편 군왕로변 316-327번지 4천623평이 1970년부터 한전이 품었다.

1984년 장등동 752번지 5만9천504㎡(1만8천평)이 한전에 속하고, 1986년 연면적 2천819㎡(853평) 지하1·지상3층 건물을 짓고, 신광주전력소가 설립돼 현재 광주전력지사다. 진월동 48번지 7천784평에 남광주변전소가 1970년 자리하더니 2016년 남구다목적체육관이 지어졌다. 48-50번지에 첩담이 있다. 쌍촌동 80-90번지 기아자동차 축구장 곁에 농성변전소가 있고, 비아·평동변전소는 수완철단단지 29번지와 용동 58-4번지에 있었다.

1990년 오지동 991번지로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옮긴다. 대지 1만4천171㎡(4천287평)에 건축면적 2천836㎡(858평), 연면적 1만198㎡(3천85평), 지하1·지상7층 건물은 5월말 사용승인이 났다. 설계자 김진균은 1980년 오일을 담았다고 전한다. 서로 엇갈려 등을 맞댄 피라미드 모양이다. 본디 502번지로 1915년 1만9천715㎡(5천964평) 크기의 연방죽, 종소제(宗沼堤)터다. 전기충전소 결 버드나무에 흔적을 적어 놓았다.

1918년 송정리 653번지 497평에 광주전기주식회사 송정리 출장소가 자리한다. 1983년 소촌동 654번지가 한전 땅이 된다. 1915년 논 6천396㎡(1

천935평)으로 박학영 소유였다. 1986년 대지 6천958㎡(2천105평)에 지하1·지상4층으로 건립한 곳이 지금 광산지사다.

광복이후 호남동 37번지 648평에 호남전기가 생긴다. 1963년 경양역 역둔토인 우산동 540번지 일대에도 2만7천90㎡(8천195평) 공장건물이 들어선다. 로케트건전지로 알려진 호전은 1978년 일곡동 758번지로 옮긴다.

2010년 고래실공원 북동편 1149번지에 열병합발전소인 수완에너지가 등장한다. 2013년 발전사업자로 전환, 2017년부터 삼익약기 소속이다. 11만5천246kW를 생산, 전력거래소(KPX)에 판매한다. 냉난방용열은 수완·하남2·3·철단2지구 4만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소수력발전은 2011년 승촌보에 800kW가 설치돼, 연간 463만3천kWh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2013년 광주호 240kW, 2014년 덕남정수장 270kW, 2016년 용연정수장 760kW로 이어 가설된다.

2004년 광주·전남 최초로 새항동(신효천)마을 64세대에 각 2.1kW와 마을회관에 5k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된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12기가 선보인다.

2013년 광주·전남 최초로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진다. 바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광주테크노파크에 1천500kW규모로 탑인프라솔라가 시공했다. 2016년 광산문화예술회관 옥상에 광주최초로 시민발전소가 뜬다. 빛고을시민솔라파워가 세운 것으로 연 2만5천345kW규모다.

2019년 남구 입암·황산마을이 광주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인증 받았다.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자립률 14%·21%를 나타내 전국 18개 마을에 든 것이다.

남구 대촌동 일원 29만평의 규모의 에너지밸리산단이 금년 준공된다. 내년 치평동 광주제1하수처리장 4천800여평에 빛고을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선다. 12.3MW로 27개 기관과 3만3천가구가 쓸 수 있다고 한다.

전기는 가장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이나 담아두기가 어렵다. 아직 쉬운 저장장치를 못 갖췄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방안이 설 때까지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 시민 일상이 비핵이다.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광주광역시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

광주매일신문과 광주광역시 문인협회가 공동으로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품집은 지난 4년여 동안 광주매일신문에 연재됐던 광주문인협회 소속 회원들의 시와 수필을 엄선한 것입니다. 작가들에게는 탐과 열정과 사색의 결과물인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표의 장을 제공했고, 독자들은 아름다운 시와 사연이 깃든 수필을 대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울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편의 시와 수필은 큰 위안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행처 <광주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연락처 062-650-2078 값 18,000